

민 성 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자유의 양면성에 대한 상징적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남 영 화

자유의 양면성에 대한 상징적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민 성 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남 영 화

인 준 서

남영화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2004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논문개요

사회는 개인을 발전시키고 개인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러나 한편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여 무력화시키며 개인은 사회의 권력에 복종하며 또한 대항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과학과 문명의 진보로 인해 근대 이전의 온갖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교, 정치, 자연으로부터의 자유일 뿐이며 '주체적 의사 결정'의 '본질적 자유'에서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의 개인은 정치 제도와 온갖 대중 매체, 수많은 이익 사회, 대량의 물질 재화들 속에서 자신이 미증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욕망' - 자신 존재에 대한 욕망이든, 물리적 이익에 대한 욕망이든 - 에 의해 통제되는 '다수의 의사 결정'을 따르고 있을 뿐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자유의지(free will)는 상실하고 사회는 획일화되어가고 있다.

본인은 현대 사회가 개인을 대중화시킴으로써 개인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개인은 개성적 삶을 욕망하면서도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고립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본질적 자유'를 포기한 채 대중적 삶을 선택하는, 자유의 양면성속에서 갈등하는 인간상을 표현해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본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이론적 배경, 소재의 상징성과 표현 방법 등을 서술한 것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주제설정 동기와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이론적 배경으로 현대 사회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즉, 자유의 양면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고독과 소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 자유를 선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획일화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도입한 형태의 상징성과 형태적인 근거 및 의미, 표현방법과 작품 분석을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작업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4
1) 자유의 양면성	4
2) 고독과 소외로 인한 획일화 현상	8
2. 작품표현방법	14
3. 개별작품분석	19
III. 결론	36

참고 문헌

ABSTRACT

I. 서론

예술가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예술 작품은 그 시대 인간 의식의 결정체로 남게 된다. 그리고 예술은 자기 표현적이며, 자기표현의 효과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본질적 또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현대 사회 속에서 개인은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자유스러움'을 느끼고 있는가?

자유 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여겨지거나, 철학에서는 '때로는 강제에 대립하는 의미로, 때로는 필연에 대립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중요개념¹⁾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자유는 단순히 한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외적인 육체적 구속 혹은 강제의 부재가 아니다. 참된 자유와 독립은 개인이 오직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느끼며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만 비로소 존재 한다는 것이다.²⁾ 그러므로 본인이 추구하는 자유는 외적인 자유를 넘어 내면적 자유 즉, 스스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이다.

우리는 '외부에 있는' 권력으로부터 한층 더 자유롭게 되는 데에 열중하여 '내부에 있는' 속박과 강제와 공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되었다.³⁾ 인류는 먼

1)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2) 에리히 프롬, 문국주 옮김, 「불복종에 관하여」 범우사, 1991, p52

옛날에는 자연에 의한 억압 - 어둠, 추위, 굶주림, 맹수의 습격 등 - 에 대항했고, 문명이 발달하면서는 종교, 지배계급과 끊임없이 투쟁했다. 그 결과 자연으로부터, 종교와 독재로부터 신체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얻어내고야 말았다. 그리고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획득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대중의 보편적 감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현대인들은 타인과 차별화되는 개성적 삶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역시 개성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개성(personality)을 성취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 개인이 실제로 대중적 동질감을 탈피하고자 한다면, 현대 사회는 개인을 고립시킴으로써 무력감과 공포를 안겨준다. 개인이 사회의 비주류에 서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이런 경험이 되풀이 됨에 따라, 결국 개인은 주류 사회로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사회의 획일화는 더욱 견고해지고 개인은 동질성과 보편성을 향한 욕망, 그리고 개성과 고유성을 향한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인 또한 사회나 인간관계로부터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으며 그로 인해 본인의 내면세계와 개성이 집단 의식 속에 매몰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두 가지의 자유, 즉 사회가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위에 예속할 '소극적 자유'⁴⁾와 사회의 기성 행동양식을 거부하여 '방종'으로 낙인찍힐 '적극적 자유'⁵⁾의 사이에서 결국은 개인적 자아를 포기하고 획일화를 선택한 현대인의 의식이 본인이 형상화하고자 하는 주제이다.

3) 에리히 프롬, 지경자 옮김, 『자유로부터의 도피』 홍신문화사, 1991, p118

4) '...로부터의 자유'(free from).

5) '...을 향한 자유'(free to).

인형 두상의 끝없는 복제는 친숙함, 편안함의 대중적 동질감을 선택한 개개인의 획일화와 몰개성을, 그리고 고양이는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도 의존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로 결국 개인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유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그 소재들의 의미와 표현방법들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1) 자유의 양면성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필수 요소이다.

자유가 없는 인간은 하나의 사물이고 기계적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유에 대해서 논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그것이 외부의 속박과 강제로부터의 자유만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에리히 프롬⁶⁾이 말한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에 불과한 것이다. 소극적 자유란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찍이 중세 이후 서구 사회에서 개인이 획득한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여기에 해당한다.⁷⁾ 그러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이다. 이것은 소극적 자유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자유로써, 개인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유대

6) 미국의 심프로이트파의 정신분석학자·사회심리학자. S.프로이트와 K.마르크스의 영향하에서 출발한 프롬은, 파시즘의 선봉에 대중이 말려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체험을 통해 '근대인에게서의 자유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에 그의 사색활동의 전부를 바쳤다. 현대에 와서 일반화되어 가는 신경증상이나 정신적 불안은 개인적인 정신분석 요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프랑크푸르트학파에 프로이트 이론을 도입하여 사회경제적 조건과 이데올로기 사이에 그 나름의 사회적 성격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이 3자의 역학에 의해 사회나 문화의 변동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즉 '인간주의적 정신분석'이다. 저서에 《자유로부터의 도피》(1941) 《인간의 자유》(1947) 《건전한 사회》(1955) 《선(禪)과 정신분석》(1960) 《인간의 승리를 찾아서》(1961) 《의혹과 행동》(1962) 《혁명적 인간》(1963) 등이 있다.

7) 에리히 프롬, 지경자 옮김, 『자유로부터의 도피』 홍신문화사, 1991

관계를 찾아낼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이다. 적극적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곧 참된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의 투쟁을 통해 소극적 자유를 얻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고독과 무력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적극적 자유를 획득할 때에야 비로소 참된 의미의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⁸⁾.

반(反)유토피아⁹⁾적 소설 「멋진 신세계」¹⁰⁾에 예시된 인물들은 보자. 그들은 과연 자유로운 존재인가?

만일 우리가 자유를 어떤 사람이 그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만 이해한다면, 「멋진 신세계」 속에 등장한 인물들은 결단코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언제든 무엇이든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는 자기 결정이 원초적으로 결여된 것으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들의 탄생 이전에 이미 프로그램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다. 그들은 극도로 발달한 문명 속에서 단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일 뿐이고 그들의 자유는 이미 프로그램 된 테두리 안에서만 무한히 맴돌고 있는 뿐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참된 자유’에 대한 사유조차 그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8) 에리히 프롬, 지경자 옮김, 『자유로부터의 도피』 홍신문화사, 1991

9) 디스토피아 (dystopia) 역(逆)유토피아라고도 한다. 가공의 이상향, 즉 현실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묘사하는 유토피아와는 반대로, 가장 부정적인 암흑세계의 픽션을 그려냄으로써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문학작품 및 사상을 가리킨다.

10) A.L. 헉슬리 소설, 1932년에 출판되었다.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여,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 세계를 그린 반(反)유토피아적 풍자소설이다. 아이들은 인공수정(人工授精)으로 태어나 유리병 속에서 보육(保育)되고 부모도 모른다. 그리고 지능(知能)의 우열(優劣)만으로 장래의 지위가 결정된다. 과학적 장치에 의하여 개인은 할당된 역할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고, 고민이나 불안은 정제(錠劑)로 된 신경안정제로 해소된다. 옛 문명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온 야만인(野蠻人)은 이러한 문명국에서 살 수 없어 자살하고 만다.

현대인은 전체주의적인 교회의 권위, 전통적인 사상의 중압감, 지리적 한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나 이 외부적인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 집착한 나머지 개개인 속에 있는 '본질적인 자유', 곧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는 '자유 의지 (free will)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말았다. 아니, 외부의 비가시적인 강요에 의한 의사 결정을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착각하는 사태에 이르고 만 것이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자유를 위한 최후의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현대인은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공중파 방송을 포함한 수십 채널의 방송과 무가지들을 포함한 수십 개의 신문들, 거기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넘쳐나는 대중매체¹¹⁾들은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개인에게 무서운 속도로 전파시키고 있다. 개인은 이것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며 여러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이미 주입된 사고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또한 자신이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의 측면에서 보자면 포드주의 · 포스트 포드주의¹²⁾이후로 넘쳐나는 상

11) 오늘날 개인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화를 대중화 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문화 상품화와 지배이데올로기 형성 및 전파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의 깊은 설득력과는 달리, 광범위한 확산을 장점으로 갖는다...즉, 일방적인 흐름으로서, 기정사실을 수용자에게 강요하여 침묵의 합의를 만들어 내기가 쉽다. 따라서, 강력한 사회적 에너지를 만들어 내기가 쉽다...이렇게 매스 미디어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중은 참된 인간적인 자유에서 사고하며 비판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생활에서 소비 경향을 극도로 신장시킨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소비 대중오락의 증대 현상으로 나타나 그것으로 향하는 인간의 심리적 작용을 강하게 중동하고 있다...

세계 대백과 사전, 학원출판공사, 1993, P. 322~323

12) 포스트 포드즘(Post-Fordism).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다. 즉, 2차대전 이후 발생한 포드주의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합된 축적체제로 본다면 1970년대 이후 이러한 포드주의가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이 위기에 대한

품들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선택하여 ‘스스로’ 개성적인 소비하고 있지만, 실상 이러한 선택들도 광고, 트렌드, 유행, 대중 매체의 영향을 받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강요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자유는 현대인에게 독립과 합리성을 부여해 주었지만, 또한 현대인을 고립시킴으로써 마침내 그를 불안에 싸인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각 개인은 개성적 삶에 대한 욕망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개인은 자유, 개성, 고유성이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도피하여 새로운 의존과 복종을 찾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독자성과 개성에 기인한 적극적인 자유의 충분한 실현을 위하여 전진해 가느냐 하는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사회의 기성 양식을 따라가는 소극적 자유를 누릴 것이냐, 거부하는 적극적 자유를 누릴 것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이 속한 집단은 1차 집단¹³⁾ 보다는 2차 집단¹⁴⁾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사회의 기성 행동 양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개성적 삶을 포기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에 의해 사회의 획일성이 더욱 견고해지리라는 것은 더욱 자명한 사실이다.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 포스트 포드주의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이한 생산단위들을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정보기술적 하부구조에 기초하여 다품종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 13) 기초집단 - 가족, 촌락, 놀이 등 혈연, 자연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생활 공동체
- 14) 기능집단 - 회사, 조합, 정당, 사회단체 등 특정기능을 목적으로 형성된 인위적인 집단으로 형식적, 사무적, 공식적, 규칙 등으로 각자가 특정기능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사회

2) 고독과 소외로 인한 획일화 현상

현대인들이 참다운 자아실현을 위한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유는 고독과 소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인간을 인간다움으로부터 소외시킨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자기로부터 소외'가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어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하였다. 이는 한 개인이 자기내부와 외부의 양 측면에서 소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인은 갈수록 고립되고 고독해지게 되며 '참다운 자기'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확신이 없어 불안하게 된다.

또한 미국의 철학자 H.마르쿠제는 현대사회의 소외된 인간상태를 가리켜 일차원적인간(一次元的人間)이라고 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사상과 행동이 체제(體制)안에 완전히 내재화(內在化)하여 변혁력(變革力)을 상실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카프카의 소설 '변신'¹⁵⁾에서 극적으로 강조된다. '변신'은 인간소외의 문제점과 고독한 인간의 존재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는 것은 인간의 참다운 자기, 아름다운 자기로부터 소외되 흉측한 비인간으로 전락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단절과 그로부터의 고립이라는 상징은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소외를

15) 변신 (變身, Die Verwandlung). 이 작품은 카프카 생전에 간행된 소수의 작품 중의 하나이며, 변형기담(變形奇譚)에 특유한 유머와 이상한 사건을 예사로운 일처럼 묘사하는 작자의 냉정하고 사실적인 문체는 독자로 하여금 실존(實存)의 차원과 부조리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박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인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세계 속에 유폐된 소시민의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카프카 문학 중에서 대표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미한다.

한편 에리히 프롬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산업사회에서 인간의 물질주의가 극도에 달한 결과, 소외된 인간이 어떻게 자기로부터 도피하고 소외로부터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 드는가를 설명하였다. 에리히 프롬에 의하면 현대인은 타자(他者)를 대면하는 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곧 '진정한 자기를 대면하는 두려움'에서 비록된 것이다. 그러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현대인들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적 권력, 집단 그 자체등에 광신적으로 매달리게 되며 실제로 나치즘에 집착한 사람들이나 독재권력집단을 적극 옹호하려는 사람들 또는 사이비 종교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¹⁶⁾

즉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해 버리고 자기밖에 있는 어떤 힘에 스스로를 위임하여 그곳에 빠져보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게 된다.

삶에서 고독감을 느끼는 것 또한 자유의 양면성 속에서 갈등하는 요인이 된다. 리스먼¹⁷⁾의 저서 《고독한 군중(The Lonely Crowd)》에서는 현대인을 또래집단, 친구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영향에 따라 행동하는 타자(외부)지향형(other directed type)¹⁸⁾ 이라고 하였다. 이는 외관상은 사교적이지만 내면적인 고립감에 번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을 말한다. 또한 타자들로부

16) 송주성, 『현대문명과 인간문제』, 자우출판사, 2001, p69

17) 리스먼 (Riesman, David, 1909~2002).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뒤 변호사와 비팔로, 시카고, 예일대학교 등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사회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 박식하여, 현대 미국사회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시도하였으며 '고독한 군중'(1950)으로 유명해졌다. 사회성의 그늘에 불안과 고독감을 지니고 있는 성격유형을 '고독한 군중'으로 파악하였다.

18) 타자지향형(他者志向型). 자신의 무력과 망막한 불안 때문에 타인의 의향에 끊임 없이 마음을 쓰면서 동조하고, 대량으로 소비하며, 신(神)과 양심이라는 내면적 권위의 부재 아래서도 사회의 여러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성격

터 인정을 못 받는 것이 현대인에게는 가장 심각한 불안이 된다.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에리히 프롬은 '우리들은 고독공포증(孤獨恐怖症)에 걸려 있다'고 하였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진실에 직면하여 자기의 운명과는 무관한 이 우주 속에서 원래가 외로운 홀몸이며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엾은 인간들이여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혐오가 아니라 연민을 느낀다. 인생에서 모든 비밀 중에서 나는 오직 하나의 비밀만을 깨달았다. 그것은 우리들의 존재의 고통은 우리들이 영원히 고독하다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다.」¹⁹⁾

-모과상

본인은 사회 속에서 고립과 소외가 두려우면서도 혼자이고 싶은 욕구를 종종 느낀다. 니체 또한 '고독의 필요는 생각하고 창조할 시간의 확보를 뜻한다'고 하였다. 즉 고독은 고립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해로움도 있지만, 이점(利點)이 작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그러므로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고립과 소외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의 필요함도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는 다양화가 결여된 대중적 삶, 동질적 삶을 강제함으로써 '획일

19) 박인권, 『시와 사랑에 빠진 그림』, 이룸출판사, 2001, p199

화'라는 새로운 권위와 독재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획일화는 자연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호색과 흡사하다. 보호색을 띠지 않아 주변에 동화되지 않는 개체는 천적의 눈에 쉽게 띄어 살아남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은 적극적인 자유와 개성을 포기하고 주변과 동일해짐으로써 사회의 고립과 배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소극적 자유를 얻게 된다.

노엘레 노이만²⁰⁾이 제시한 '침묵의 나선(The Spiral of Silence)'이론을 보자.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같다고 인식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고립의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인식하게 되면 점점 자신을 잃고 위축됨으로써 침묵하게 된다는 것이다.²¹⁾

따라서 인간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하고 어떤 의견과 행동양식이 우세한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의견을 갖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월하고 지배적인 집단은 나선형 과정으로 증폭되고, 소수의 집단은 나선형을 그리며 쇠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획일화는 소비 가능한 온갖 물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드러난다. 우리 사회의 전 부분에서 획일화, 즉 유행²²⁾을 찾아볼 수 있다. 유행은 사회 모든 요소들의 복합적

20) 독일의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자 엘리자베스 노엘레 노이만(Noelle Neumann)이 1974년에 제시한 이론이다.

21) 원우현, 박종빈 공저, 『여론 홍보론』, 법문사, 2000, p94

22) 풍습이나 관습에 대하여 일정 기간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양식을 자유로이 선택·채용·폐기함으로써 생기는 광범위한 사회적 동조행동현상. 아이디어나 이노베이션(혁신)의 보급과정의 한 영역이다. 일반적으로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생겨나며, 그것은 일시적이며 덧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무시할 수 없는 변화로 느껴진다. 이를 채택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지나 관습이나 규범과는 달리, 사회적인 통제나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심리적인 압력으로 통제

인 결합 결과이고, 소위 '선진 문화'의 무비판적 수용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식상해 있던 기성 문화에 대한 반동이면서, 의도적인 새로운 상품이기도 하다.

유행은 현대성, 진보, 젊음 등의 가치와 결합해 있다. 유행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생산을 촉진하고, 공업과 상업에 모두 유리하다. 또한 나름대로 필연성과 인과관계를 갖춘 사회 심리적 현상이다.²³⁾ 지금까지 사회는 청바지, 통기타, 뉴에이지, 크로스 오버, 퓨전, 키치, 엽기, 얼짱, 웰빙 등 끊임 없이 새로운 문화코드를 만들어 왔다. 대중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행은 항상 새로움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유행의 첨단에 서려고 하는 동기는 남의 시선을 끌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다는 바람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욕구는 각 개인에게 모두 공통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유행을 모방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비슷한 옷, 음악, 영화, 책 등의 문화를 찾게 되고 비슷한 사고방식을 공유하게 된다. 또한 자본주의적인 소비 사회는 대량 생산으로 인한 대량 소비를 대중에게 강요하여 비개성화시켰다.

일시적 유행의 예로 '신드롬²⁴⁾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드롬은 개인의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거나, 획일화된 문화적 상황 그리고 사회 역사적 가치관의 다양화가 정립되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잘 나타

되고, 개인을 초월한 압력으로써 인간에게 다가온다. 주로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데서 성립하며, 가치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영향이 강화되면 문화 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관습이나 규범의 테두리를 넘어서게 되는 일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행은 기업화·상품화되고, 자본의 이윤추구에 이용되는 것이 결점이다.

23) 마르코-알렉데강, 강주현 옮김, 『허영과 유행의 심리』, 사피엔티아 출판, 1999, p24~25

24) 신드롬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 사건 등에 대한 사람들의 집단적 몰입상태 현탁수, 『일상속의 대중문화 읽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p3

난다.²⁵⁾ 따라서 신드롬은 개인과 사회체계의 불안정에서 안정을 찾는 움직임이다. 개인들은 대중적인 움직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에 참여할 때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사회적 정체성을 찾았다고 믿는다. 즉, 신드롬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영역과 행동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개인들의 참여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획일화 현상은 매스 미디어에 의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신문, 방송, 교육 등 여러 수단은 대중을 일정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획일적인 사상, 감정 속으로 매몰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표면상으로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경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본인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된 개인들이 사소하게는 놀림거리가 되거나 사회적 부적응자로 인식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다. 외부의 차가운 시선으로 인해 자신의 참된 자아를 포기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자유 의지'대로 개성있는 삶을 살 것인지를 사이에서 나의 의식은 늘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25) 현택수, 『일상속의 대중문화 읽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p4

2. 작품의 표현방법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과학과 문명의 진보로 근대 이전의 온갖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이것은 외적인 자유일 뿐 본질적인 자유에서는 멀어지고 있다.

본인은 자유의 양면성 속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의식을 상징적 형태와 조형적 표현 방법으로 구현하였다.

인간은 '상징을 사용하는 동물'(animal symbolicum)이라고 한다. 예술적 상징은 그것들이 나타내는 관념에 구체적 외형을 부여한다. 그것들은 인간 존재의 문제를 부활시키고 또 분명히 한다.²⁶⁾ 따라서 예술 작품은 현상과 관념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현실의 수준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인형 형상의 '두상', '고양이', '모래시계', '도시의 이미지' 등의 형태를 도입하여 현대인이 직면하고 있는 고독과 소외의 감정을 자율성의 회피와 그것으로 인한 획일화현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상징적 형태와 반복적 형상으로 구체적 표현을 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복제된 인형 형상의 두상은 몸이 단순히 삭제 되었다기 보다는 머리에 스며든 함축적인 인간상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신체 중 얼굴은 사회화, 차별화의 기표이다. 이것은 개별적인 인간상을 의미하지만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두상은 유아용 인형의 이미지를 줌으로서 미숙하고 의존적인 인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상은 친숙하지만 괴이한 이미지²⁷⁾로 인간성과 비인간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형태이며 개성화되지 않

26) 루돌프 아른하임, 김재은 옮김, 『예술심리학』,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1995, p316
27) 프로이트에 따르면 괴이한 이미지는 섬뜩하면서 은밀하며 (unheimlich and

은 자동기계인형으로 프로그램된 현대인의 상징이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복제되어 반복적으로 쓰이는 '두상'은 그 형태가 상징하는 의미를 강조 한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현대인의 몰개성과 획일화되고 집단화된 의식구조를 강조한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작품 1, 2, 3, 7]에 도입된 고양이 형태는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도 자유로운 존재로 결국 개인이 추구해야할 자유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프로이드는 종종 동물로 상징되는 <자기>는, 우리들의 본능적인 성질이나 환경이 지니는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²⁸⁾ 즉,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인상 깊게 받은 미적 대상을 골라 그것을 강조하며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고양이는 본인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이다. 본인이 기억하는 유년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 생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숙함의 의미로만 작업에 고양이 형태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고양이는 약 5천년전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상징체계를 갖고 인간과 가까이에서 존재하는 동물이다. 고양이 길들이기는 역사적으로 그 기원이 불명확하고, 성공했는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 고양이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인간의 동반자로서 상호 교류를 하며 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고양이는 신적(神的)이면서 악마적(惡魔的)인 동물로 여겨졌다.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인식은 양면성을 띤다. 영물과 악물의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을 대신하여 표현되기도 한다. 이

heimich) 일상적이면서도 비밀상적이며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경험을 주는 욕구되면서 물신(fetish)이다. 프로이드, 김영중 옮김, 『프로이드 예술미학 분석』, 글벗사, 1995, p189

28) 칼G, 융, 이윤기 옮김,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1996, p207

것은 사람들 스스로 고양이의 습성에서 인간과 비슷함을 느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양이는 숭배의 대상²⁹⁾이 되기도 했으며, 사탄의 앞잡이³⁰⁾라는 누명을 받았고, 예술과 지식인의 동반자³¹⁾이기도 했다.

고양이는 개와 함께 인간과 가장 친한 동물이다. 그래서 종종 개와 비교되는 대상인 동시에 대조되는 동물이기도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고양이보다 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양이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개를 보는 시각으로 고양이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고양이는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으로 의존적이며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는 개와 달리 매우 독립적인 존재로 누구에게도 간섭받거나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를 지키며 자신의 성질을 유지해가는 동물이다. 이러한 고양이의 일반적인 특징이 발휘된 작품이 '장화신은 고양이'이다. '장화신은 고양이'는 고도의 지략과 용감한 실천력이 동반된 인생을 과감하게 소신껏 개척하는 행동인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³²⁾

사회학자 최재석³³⁾은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은 고양이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29)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 바스트는 저승과 이승, 두 세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신비로운 피조물로 음악, 춤, 모성의 여신이며, 마술사, 의사, 산파의 수호신이다. 바스트는 고양이의 머리에 여성의 몸을 하고 있다. 이집트 제12왕조때인 기원전 2000년경 고양이는 여성성과 풍요의 상징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 신전에 등장했다. 로베르드라로슈, 김희경 옮김, 『고양이』, 창해, 2000

30) 중세 서양에서는 고양이를 악마로 여김으로서 마녀사냥으로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희생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리스교에서 고양이의 증오는 여성혐오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불길한 존재로 여겼다. 로베르드라로슈, 김희경 옮김, 『고양이』, 창해, 2000

31) 예술가에게 고양이의 눈은 시적인 감수성과 환상을 얻어내고 예술적 영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였다. 모하메드(Mohammed)는 자신의 팔에서 잠든 고양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 외투의 소매를 잘라냈다. 라이너 홀베, 박원영 옮김, 『아름다운 이웃, 동식물의 신비』, 사람과 책, 2003, p44~54

32) 박임진, 『빼로의 <장화신은 고양이>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

33) 도올 김용옥의 스승인 최재석은 우연하게 고양이를 20여년 동안 고양이를 키우다

하였다. 묘심(描心)이란 호기심(curiosity), 자존심(self-respect), 고독(solitude)이다. 즉,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강한 자존심으로 고독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 또한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러한 습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고양이의 습성은 학문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덕목인 듯하다.

또한 채지충³⁴⁾은 “20세기는 개의 시대였다. 하지만 21세기는 고양이의 시대다”³⁵⁾ 라고 한다. 즉, 우리시대가 위계질서에 충실한 개의 시대에서 개성과 전문적 능력을 중요시 하는 고양이의 시대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고양이는 자유 혹은 독립을 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동물로서 이것이 어떤 가족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고양이만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작품[작품1, 2, 7]에 도입된 고양이의 형상은 마치 이집트의 미이라나 화석의 이미지처럼 단순화 시켰다. 이것은 표면적 이미지보다 상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투조된 눈은 무의식이 “보고 있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라는 메시지³⁶⁾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양이상’은 세라믹 재질로 제작되어 눈과 내부가 비어있고 내부의 조명으로 인해 표면은 따뜻한 온도³⁷⁾를 느낄 수

보니 어느 날 고양이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학자의 자세와 너무나 흡사해서 그것을 묘심(描心)이라고 표현했다. 김용옥, 『노자와 21세기』, EBS교육방송, 2000, 40장, 묘심(描心)과 평상심(平常心)

34) 중국의 문학과 철학을 만화라는 기법의 예술로 승화시킨 선구자로서 추앙받고 있다. 1995년에는 불교와 물리학 공부에 전념하며 「반야심경」 「부처님 이야기」 「법구경」 등을 출간하였다.

35) 채지충, 정영문 옮김, 『고양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창해, 2001, p11

36) 수잔 편저, 김진숙 옮김,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창해, 1998, p192

37) 조각은 입체로 구현되었기에 회화나 디자인처럼 시작적인 면만 아니라 촉각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따라서 ‘만지지 마시오’가 아니라 손으로 더듬어 감상하는 것은 그 재료와 형태의 물리적 특성을 직접 감지하고 조각가의 작업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된다. 편집부, 『예술 깊이같이』 자유문고, 1995, p30

있다. 뿔려있는 고양이의 눈은 빛을 발산하는 구조로 본질적이며 진정한 자유의 갈망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되는 이미지는 고립을 상징하는 형태로 '원'을 사용하였다. [작품2]에서 7개의 '고양이상' 중앙에 매달려 있는 3개의 구 형태는 동선으로 된 원이 교차하여 만들어진 구의 형태로 그 내부 안에는 '두상'이 각각 들어있다. '원'은 형상이 있는 장소를 제한하고, 형상을 고립시키는 간단한 수법이다.³⁸⁾ 즉, 여러 개의 원이 교차되어 만들어진 구의 형태는 고립을 상징하는 자유의 부정적 측면을 의미한다.

또한 본인은 작품에 도입된 자유의 부정적 측면을 '도시'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옛날부터 인간의 욕망은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문명의 혜택을 보는 반면 많은 부분에서 물질문명에 의해 통제되고 의존적이 되었다. 도시는 평범한 소시민들이 창조적이며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장소³⁹⁾가 되어야하지만 개인적, 사회적 관계에서 발견되는 확신과 칭찬, 사업에 있어서의 성과, 모든 종류의 기분전환 -즐거움, 교제, 유람 등- 에 의해 고독과 소외와 무력한 감정은 은폐된다. [작품7]은 인간자체를 획일화 시키는 도시에서 구성원 대부분이 이기심과 체념에 사로잡혀 수동적이 되고 있는 현대사회를 거꾸로 설치된 도시의 이미지로 형상화 하여 실상과 허상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불안한 현대인의 심리를 표현하였다. 또한 어둡고 암울한 도시를 비추는 가로등은 밤에만 빛을 발하는 고양이의 눈과 일치시킴으로서, 인간 의식의 내면에 흐르는 적극적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였다. 검은색으로 채색된 도시는 '죽음'과 '우울'이나 '상실감' 같은 부정적 이미지와 '삶의 시작과 끝'을 의미⁴⁰⁾한다. 또한 '권위'와 '위엄'과 같은 지배적인 강한 힘을 상징한다.

38) G·들뢰르, 하태환 옮김 『감각의 논리』, 믿음사, 1995, p3

39) 존 쇼트, 백영기 옮김, 『인간의 도시』, 한울, 2000, p15

40) 수잔판처, 김진숙 옮김,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학지사, 1998, p70~72

3. 개별 작품분석



【작품 1】 의식속으로 - 응시 I, 세라믹 · 혼합재료, 가변설치, 2003

【작품 1】 의식속으로 - 응시 I

제작연도 : 2003

재 료 : 세라믹, 혼합재료

크 기 : 200×30×50 (cm)

제작방법 : 점토로 원형을 제작한 후 석고로 사용형을 만들어 5 mm~10 mm의 점토판을 사용형에 눌러서 성형하였다. 이런 과정으로 속이 빈 '고양이상'을 건조시켜 약 850℃내·외로 초벌구이하고 시유한다. 시유방법은 붓처리법(Brushing), 분무입힘법(Spraying)으로 하여 은은하고 부드러운 그라데이션과 흘러내린 듯한 자국을 남긴다. 재벌구이는 1250℃에서 약 12시간 정도 소성한다.

좌대는 나무박스에 석고와 안료를 혼합하여 거친 표면 처리 후 벽에 부착한 뒤에 '고양이상'을 설치하였다.

이상적 자유의 상징으로 표현된 '고양이상'을 전시장입구부터 관람객의 시선과 비슷한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관람객이 고양이의 이미지와 상징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고양이상'은 관람객의 시선과 같은 위치에 놓여있으므로 '고양이상'을 보는 관람객은 고양이에 대한 각각의 이미지와 상징을 떠올리게 된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고양이의 눈을 통해 고양이의 긍정적 기억보다 부정적 기억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고양이를 친근하게 여기는 사람은 고양이의 눈을 긍정적 이미지로 바라보게 된다. 이는 고양이의 눈이 이중적 상징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밤길에서 빛나는 두 개의 푸른 광채에 섬뜩함과 무시무시함을 느끼게 된다. 무시무시함은 친근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한 두려움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고양이를 부정적 이미지로 보는 관람객들

은 고양이와 친숙하지 않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양이의 긍정적 상징체계인 자유와 독립성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작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작업을 하면서 충분히 예측한 일이며 고양이의 상징성에 대한 대화를 관람객과 함께 함으로써 관람객과의 소통을 유도하였다.



【작품2】 의식속으로 - 응시Ⅱ, 세라믹 · 황동 · 합성수지 · 조명, 가변설치, 2003

【작품 2】 의식속으로 - 응시 II

제작연도 :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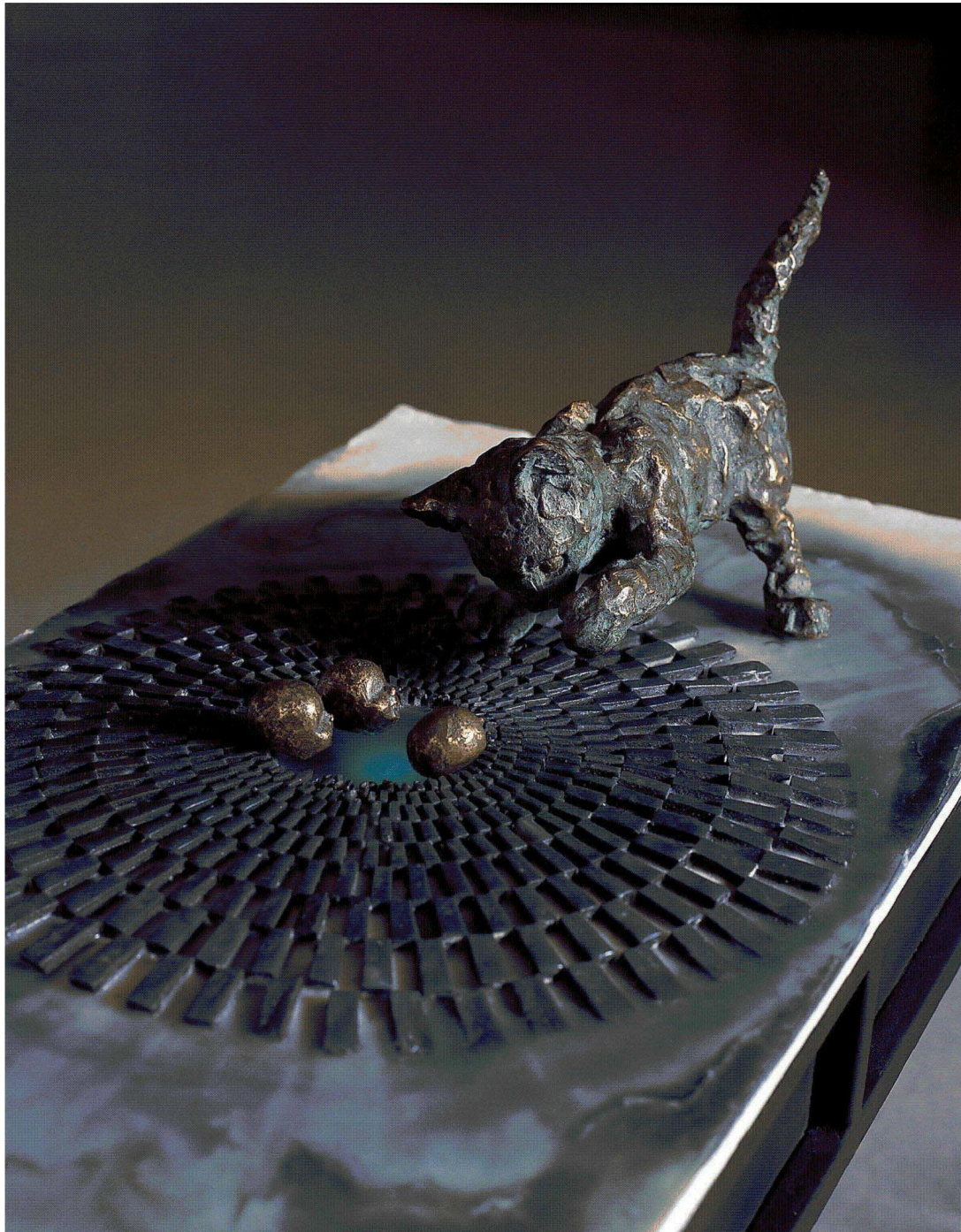
재 료 : 세라믹 · 황동 · 합성수지 · 조명

설 치 : 가변설치

제작방법 : 황동 3 mm 선을 지름 15 cm의 원으로 여러개를 제작하여 구형태가 되도록 교차하여 용접하였다. 실리콘틀에 성형한 '두상'을 내부에 넣은 후 마무리 용접을 하였다. 7개의 '고양이상'은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구 안의 '두상'은 공중에 띄어 설치하였다.

점토로 원형을 제작한 후 석고로 사용형을 만들어 5 mm~10 mm의 점토판을 사용형에 눌러서 성형하였다. 이런 과정으로 속이 빈 고양이를 건조시켜 약 850℃내 · 외로 초벌구이하고 시유한다. 시유방법은 붓처리법(Brushing), 분무입힘법(Spraying)으로 하여 은은하고 부드러운 그라데이션과 흘러내린 듯한 자국을 남긴다. 재벌구이는 1250℃에서 약 12시간 정도 소성한다.

공중에 설치된 3개의 구는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두려워하는 현대인을 상징하며, 7개의 '고양이상'은 자유의지를 상징한다. 그림을 그릴 때 인물주변에 원을 그리는 것은 그 인물을 고립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다. 본인 또한 여러개의 원이 교차되어 만들어진 구의 형태에 '두상'을 넣은 것은 현대사회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고립과 소외로 인해 불안정한 의식 상태임을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세계의 구는 각각 두상을 안에 가두고 있으며 공중에 띄워서 설치하는 것도 불안한 개인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일곱 개의 고양이상은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며 고양이의 시선은 고립된 인간상을 보고 있다. 고양이의 뚫린 눈에는 빛이 발하고 있으며 작품이 설치된 벽에는 고양이와 고립된 인간상의 그림자가 없어지고 생김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실상과 허상의 세계를 느끼게 하였다.



【작품 3】 의식속으로 - 들어가다, 청동·철·대리석파우더·합성수지·안료,
86×53×102(cm), 2003

【작품 3】 의식속으로 - 들어가다

제작연도 : 2003

재 료 : 청동, 철, 대리석파우더, 합성수지, 안료

크 기 : 86×53×102 (cm)

제작방법 : 두상과 고양이는 점토작업 후 석고로 캐스팅하여 주물제작 하였다.

바닥의 문양은 우드락으로 원형제작하고 실리콘몰드를 제작한 후 대리석파우더와 안료를 혼합하여 합성수지로 성형하였다.

‘두상’이 있는 중심에서 확산된 원은 고립된 인간의 의식이며 자유의 상징인 고양이는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 내면의 의식임을 표현하고 있다.

중심에서 반복되는 원은 ‘침묵의 나선’이론의 나선 구조를 조형적으로 형상화 하여 그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인간상과 그것을 해체하려는 고양이의 형태로 본인의 자유의지를 표현하였다.

중심부에는 청록색의 조명을 설치하여 녹색의 빛이 나오며, 짙은 청록색의 안료와 흰색의 안료를 배합하여 번져나가는 듯한 이미지를 주었다. 청록색의 상징은 치유성이다. 이는 본인의 획일화되어가는 의식을 치유하려는 노력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작품 4】 의식속으로 - 생성과 소멸, 철·동판·합성수지, 100×100×196(cm), 2003

【작품 4】 의식속으로 - 생성과 소멸

제작연도 : 2003

재 료 : 철, 황동판, 합성수지, 조명

크 기 : 100×100×196 (cm)

제작방법 : 부식처리 된 철 사각박스에 성형된 얼굴이미지를 부착시켰다. 두 박스사이에는 아크릴관으로 통로를 만들고 아크릴관 내부에는 투명 합성수지에 안료를 혼합하여 성형된 두상을 넣은 후 동판으로 연결부분을 용접하여 제작하였다. 걸 프레임은 철을 벤딩하여 용접하고 내부에 사각프레임은 철 각파이프를 절단하고 용접하여 제작하였다.

자유의지라고 착각을 빚어낸 현대인들의 모든 의지 결정을 모래시계의 구조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기존의 모래시계와 달리 본인의 작품은 모래알 대신 두상을 채웠으며 두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도 네 개로 되어있다. 이것은 결국 같은 공간을 이동하지만 그 내부에서 이동하는 각 객체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것은 통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어 같은 공간 안에서의 반복된 이동이 되는 것이다. 즉 대중들은 다양화된 현실 속에서 개성을 표현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의식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무한반복의 자유임을 표현하였다.

인간의 행동영역을 표현한 두 개의 철로 된 사각박스는 부식된 상태로 표면을 처리하여 철이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오랜 세월의 흐름을 내포하고 있다.



【작품 5】 의식속으로 - 이중성 I, 합성수지, 34×34×216(cm), 2003

【작품 5】 의식속으로 - 이중성 I

제작연도 : 2003

재 료 : 합성수지

크 기 : 34×34×216 (cm)

제작방법 : 점토로 원형작업 후 석고로 곁틀을 제작하여 합성수지로 성형하였다. 여러개로 성형된 두상을 한 면에만 부착한 후 표면은 흰색 안료로 채색하였다.

사각형은 견고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균형이 이루어진 느낌을 주는 형태로 안정을 찾는 현대인의 상징이다.

전체적인 구조는 직육면체의 상단부분이 어긋남으로서 같은 직육면체를 계속 쌓으면 나선형 형태로 상승하는 구조가 된다. 즉 수직적 구조로 인간의 욕구와 열망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확대와 축소가 아닌 평행선을 그리며 끝없이 상승하는 형태로 결국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은 높이의 차이가 있을뿐 결국 같은 자리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끝없는 반복으로 고독과 소외의 두려움으로 스스로의 의사결정보다 획일화를 선택하여 살아감으로서 집단 의식 속에 휩쓸리는 현대인을 표현하였다.

흰색은 영적 풍요로움을 상징하지만 부정적 이미지로 개성이 없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동시에 개성이 결여되었음을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내었다.



【작품 6】 의식속으로 - 이중성Ⅱ, 청동 · 황동 · 와이어, 34×34×213(cm), 2003

【작품 6】 의식속으로 - 이중성Ⅱ

제작연도 : 2003

재 료 : 청동 · 황동 · 와이어

크 기 : 34×34×213 (cm)

제작방법 : 점토로 원형을 제작한 후 내화 석고로 성형하여 황동으로 모서리를 맞추어 용접하였다. 황동은 샌딩하여 코팅하였다. 내부의 두상은 청동으로 제작한 후 와이어로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자유의 양면성 속에서 갈등하는 인간상을 [작품5]와 대조적으로 표현하였다. 직육면체 안에 있는 각각의 두상은 모두 연결되어있다. 이것은 인간이 고독한 존재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작품의 주된 색채는 갈색계열로 갈색은 고난, 억압, 안정에 대한 욕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의 사회성은 겉모습일 뿐 내면의 의식은 고립되고 소외된 현대인을 표현하였다.



【작품 7】 의식속으로 - 욕망, 포맥스 · 아크릴 · 조명 · 스테인레스스틸 · 세라믹,
210×210×240(cm), 2003

【작품 7】 의식속으로 - 욕망

제작연도 : 2003

재 료 : 포맥스, 아크릴, 조명, 스테인레스스틸, 세라믹

크 기 : 210×210×240 (cm)

제작방법 : 3 mm 포맥스판으로 도시를 만들고, 각각의 건물이미지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였다. 도시의 중앙에 스테인레스스틸 파이프로 세 개의 가로등 형태를 제작하여 조명을 설치하였다. 와이어를 이용해 전시장의 상단모서리 공간을 맞추어 설치하고 하단의 모서리 부분에 조명을 설치한 '고양이상'을 놓았다.

도시의 이미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성을 나타낸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도시는 인간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지만 적극적 자유와 인간관계는 악화되고 그 안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권위와 독재를 가하는 존재로 표현하였다.

또한 거꾸로 천장에 매달려 있는 도시는 관람객에게 시지각적으로 불안함과 무거운 이미지를 느끼게 함으로서 도시속의 삶을 풍요롭고 안정된 삶이라고 착각하는 개인의 의식을 표현하였다.

가로등 두 개의 불빛은 밤에 빛을 발하는 고양이의 눈을 연상시키며, 바닥에 있는 '고양이상'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의지의 상징으로 가로등과 일치하는 시점에 설치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내면에 내재된 자유의지를 상징한다.



【작품 8】 의식속으로 - 떠돌다, 적동봉 · 대리석파우더 · 나무, 2003

38×30×56(cm), 2003

【작품 8】 의식속으로 - 떠돌다

제작연도 : 2003

재 료 : 적동봉, 대리석파우더, 나무

크 기 : 38×30×56 (cm)

제작방법 : 점토원형에 실리콘몰드를 제작하여 대리석파우더와 안료를 혼합한 후 합성수지로 성형하였다. 중앙에 구멍을 뚫어 유화가리 처리된 동봉에 끼워 넣고 동봉을 벤딩하여 나무재질의 바닥에 고정시켰다.

유아용 교구인 '롤러코스터'의 구조를 사용하여 재구성한 작품이다. 여러 개의 선이 자유롭게 곡선과 직선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지만 양쪽 끝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반복된 움직임만을 하는 현대인들을 표현하였다. 현대인들은 선택할 자유, 어디든 이동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정된 영역 안에서의 자유임을 인식하지 못하며 구조의 특성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동할 수 없으므로 이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 즉, 새로운 권위와 독재에 의해 의존적인 현대인을 표현하였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인간은 외부의 다양한 권력에 대항하여 자유를 쟁취해왔다. 그것은 종교의 자유이기도 했고, 불합리한 착취를 거부할 자유이기도 했고, 경제적 부를 쌓을 수 있는 자유이기도 했으며, 정치에 참여할 자유이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규제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획득한 자유는 오히려 인간 내면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몰개성과 대중화의 특성 속에서 인간은 그 사회라는 또 다른 권력에 '복종할 자유'와 그것을 '거부할 자유'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갈등한다.

자신의 내면을 향한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하여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찾는 작업은, 자기의 삶에서의 의사 결정을 온전히 자신의 통제 안에 두고 싶어 하는 극히 당연한 기초적 충동이다. 따라서 개성을 억누름으로써 함께 있음(togetherness)을 이루는 것만이 우리가 찾고 있는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속에서의 조화와 융합을 무시하고 온전히 개성으로만 형성된 자아를 만들고자 함도 아니다.

이러한 자유의 양면성의 족쇄는 현대인의 무의식속에 일탈에의 욕망, 좌절, 슬픔, 파괴에의 열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심게 되었으므로, 이것들로부터 고통만을 느끼는 대신 예술 작품 속에 구현시킴으로써 주관성과 함께 정화하고 미적으로 승화시켜 그 감정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많은 부문에서 다수의 작가들이 일련의 작업을 해왔다. 본인 역시 이러한 인식에서 작품을 시작하였으며 자유의 양면성이 갖는 개인의 고독과 무력한 감정을 작품 속에서 구현하였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자유의 이중성을 단순화한 두상과 고양이로 표현하였다. 두상은 고립과 소외로부터 대중적 동질감을 선택한 개개인의 획일화와 몰

개성을 강조하며 고양이는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도 자유로운 존재로 결국 개인이 추구해야할 진정한 자유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앞으로도 본인의 작업 방향은 현대 사회 속에서 자유의 양면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내면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또한 개인 간의 관계에 삶의 초점을 맞추며 본인의 자유의지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앞으로의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표현방법의 대상과 형식을 꾸준히 연구하여 더욱 발전된 조형언어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에리히 프롬, 지경자 옮김, 『자유로부터의 도피』, 홍신문화사, 1991
- 루돌프 아른하임, 김재은 옮김, 『예술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 프로이트, 김영종 옮김, 『프로이트 예술미학 분석』, 글벗사, 1995
- 칼G.융, 이윤기 옮김, 『인간과 상징』, 열린책들, 1996
- 원우현, 박종빈 공저, 『여론 홍보론』, 법문사, 2000,
- 현택수, 『일상속의 대중문화 읽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마르코-알레데강, 강주현 옮김, 『허영과 유행의 심리』, 사피엔티아, 1999
- 박임전, 『빠로의 <장화신은 고양이>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
- 김용옥, 『노자와 21세기』, EBS교육방송, 2000
- 채지충, 정영문 옮김, 『고양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창해, 2001
- 존 쇼트, 백영기 옮김, 『인간의 도시』, 한울, 2000
- 로베르 드라로슈, 김희경 옮김, 『고양이』, 창해, 2000
- 라이너 홀베, 박원영 옮김, 『아름다운 이웃, 동식물의 신비』, 사람과 책, 2003
- 편집부, 『예술 깊이같이』, 자유문고, 1995
- G·들뢰르, 하태환 옮김, 『감각의 논리』, 믿음사, 1995
- A·혁슬리, 이성규·허정애 옮김, 『멋진 신세계(외) 다시가본 멋진 신세계』, 범우사, 1994
- 에리히 프롬, 문국주 옮김, 「불복종에 관하여」 범우사, 1991
- 박인권, 『시와 사랑에 빠진 그림』, 이룸출판사, 2001
- 송주성, 『현대문명과 인간문제』, 자우출판사, 2001
- 수잔 편저, 김진숙 옮김,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창해, 1998
- 세계 대백과 사전, 학원출판공사, 1993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ABSTRACT

A study on the symbolic presentation for two faces of freedom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Own Works -

Nam Younghwa

Majored in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society enlightens an individual, while an individual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where she belongs to. However, at the same time, a society interfere personal liberty, while an individual confront the absolute authority of the society. It appears that any individual does not have any trouble enjoying freedom thanks to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civilization. Nevertheless, this kind of freedom can only be defined as the 'freedom' of religion, politics, and the force of nature. Therefore, people are even far from 'fundamental freedom', which characterize independent decision making.

As a matter of fact, people in the modern society 'believe' that they possess unprecedented freedom in consequence of mass media, mass products,

diverse social structures, and political environments. Conversely, the society is becoming homogeneous as its members give up their own uniqueness, but follow 'mass deliberative decision' controlled by 'desire', both for personal identity and for materialistic benefits.

The present author has been representing personalities disturbed by the two faces of freedom. The contemporary society disguises person uniqueness by perceiving its members as a homogeneous group. Simultaneously, the individuals choose to live as elements of the homogeneous group in the fear of alienation and isolation from the society, even though in their deep minds, they seek for distinctiveness.

The present thesis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all of which elaborate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interpretation of materials used, and the manners of representing the present author's 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ill be explained by the Chapter 1. In the Chapter 2,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present author's work will demonstrate the conflict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freedoms. Also, it describes the homogeneity resulted from the conflict, by illustrating the theory of 'the spiral of silence' and the cases of the social homogeneity. The analysis of the present author's work will also be rationalized by assessing the demonstration methods of symbolism, the reasons and significance of its structure. This present study will be concluded by summarizing and presenting the directions for the future study in the Chapter 3.